

코스피	2674.31 (+12.03)	코스닥	767.66 (+11.62)
금리 (연이자율)	2.953 (+0.014)	환율 (원/달러)	1337.50 (+4.30)

민생공약 협의 맞손... 금투세 폐지·특검법 합의 불발

(채 해병)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와 채 해병 특검법 등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11년만에 성사된 것이어서 정치권이 '합치'의 새로운 길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반대체·AI 산업 적극 지원 등 8개 사안 공동합의문 발표

금투세는 종합적 검토·협의의 채상병 특검법 이견차 확인

농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합의했다.

당장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 제도 시행 여부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곽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것은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를 좀 더 하자는 입장이어서 그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조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 구조적 개혁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나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발표문에 담겨 있는 것처

럼 종합적으로 검토 및 협의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제로 예상됐던 채 해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 여야 대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동합의문에도 실리지 못했다. 조수석대변인은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곽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입장을 낼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견차만 드러났다



메트로경제 '2024 물류·모빌리티 포럼'

AI 시대, 지능화된 물류의 흐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물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흐름(flow)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등의 미래 기술이 더욱 발전하며 그 흐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찾아온 글로벌 경기침체는 물류와 모빌리티에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물건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고 또 안전하게 이동시키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이자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4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그 인사이트를 드립니다.

- ◆ 주제 : AI시대 FLOW전략 이동의 한 순간, 물류의 매 흐름
- ◆ 일시 : 2024년 9월 25일 오후 2시~5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르다워 페럼홀
-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 문의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강연 :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학과장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차두원 소네트 대표 김준환 스트라드비전 대표



는 지적에 대해 곽수석대변인은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선 향후 입법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며 "양당 대

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한 자리인만큼 오늘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으며 추후에 자리를 또 갖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K-반도체, 美 수출통제 반사이익... 中 구매·지원 러브콜

美 추가 규제 가능성 높아져 中 자체 공장 구축 준비부터 K반도체 추가 매입 가속화

미국의 수출 통제로 첨단 반도체 칩 확보가 어려워진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 핵심은 제품 구매와 정책 지원 투 트랙이다. 삼

성과 SK는 반기는 분위기다.

1일 (메트로경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7일 중국 장쑤성 우시시(市)에서 SK그룹의 반도체 산업 프로젝트 수행을 돕기 위한 '한중반도체 펀드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시시는 반도체 산업을 지역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반도체 펀드 프로젝트는 10억 위안(1900억 원) 규모로 우시첨단기술지구, 산업그룹, 군해주석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군해주석산업은 SK그룹의 중국 계열사 SK차이나와 군련캐피탈이 5:5 공동 지분을 갖고 있다.

앞서 우시시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반도체 기업인 넥스틴(Nextin)과 기가레인(Gigalane)을 우시 하이테크 존에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2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우시시의 한국 반도체 기업 유치는 지방 정부의 지역 발전대책으로도 풀이되지만 반도체 공정 장비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

황 속에서 자체적인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한 걸음으로 분석된다. 넥스틴은 반도체 웨이퍼 및 반도체 공장 공급을 위한 고급 테스트 및 측정장비 연구 개발을 중점으로 하는 기업이다. 기가레인은 LED 칩 장비 분야에 서 세계 1위의 장비 출하량을 기록 중인 기업이다. 기가레인은

우시에서 칩 장비 조립 생산라인과 장비 제품 검증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혁신을 막기 위해 첨단반도체와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비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9월부터 중국의 AI 메모리 반도체와 생산장비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4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국민 생명권 위해 의료개혁 필요... 비난 감수하고 해내야 할 소명" /뉴스1
▲ "딥페이크" 난리인데... 삭제지원 센터 예산 늘긴 커녕 6% 깎였다

▲ 노동계 "尹 국정과제 브리핑 '뻔뻔'... 노동자법은 갈라치기"
▲ 홍준표, 문다해 압수수색 야 반발에 "문정권 때 내 아들·며느리까지 조사"



▲ 조국 "검, 文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 김건희는 털끝하나 안 건드려" /뉴스1
▲ 정부 감세 드라이브에 野 현금지원 압박... 곳간 텅 빈다